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遺子滿籝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대중회 2024년도 임원회의 및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종로구민회관 2층 창신아트홀에서 대의원 109명 중 96명, 임원 32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광주이씨 대중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경과보고와 특별 보고사항으로 ①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황, ② 퇴직임원 퇴직금청구의 건 ③ 수송동 건물매각대금 지급 시정조치 요구의 건 ④ 2024 사업년도 예산편성 방침의 건 ⑤ 대중회 본관 리프트 설치의 건 ⑥ 청백리공묘역 일부 부동산 매매 계약 처리의 건 ⑦ 회관임대 장기연체자 조치의 건에 대한 특별보고와 정기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① 대원근린공원 편입토지 산책로 사용승인의 건 ② 예산운영기준(안) 승인의 건, ③ 취업규칙 제정 승인의 건 ④ 임대료 대손처리(안) 승인의 건 ⑤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사업 참여 승인의 건(대의원총회 안전 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부의 안전의 심의에 들어가 ① 제1호의안 2023년도 수입·지출 결산의 건 ② 제2호

의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의 건 ③ 제3호의안 역세권 활성화사업 참여 승인의 건 ④ 제4호의안 기타 중회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이날 주영 대중회장은 인사말에서 첫째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대비책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삼성동소재 수도빌딩 재건축 방안 적극 추진. 둘째 「광이의 날 행사」가 광주이씨 전체 종인 축제의 장이 되고 청장년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셋째 시대적요구와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종인들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검토. 넷째 한글세대 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적발간 및 제례 관련 용어 한글화 작업 검토. 다섯째 알차고 충실한 내용의 광주이씨 회보의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개편 등 대화와 정보의 마당을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문중의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다

이어 경과보고와 감사보고가 시작되면서부터 수송동 건물매각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 10분간의 정회를 하고 회의가

속개되었으나, 전술한 매각대금관련 토론의 여파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감사보고 후 광원군파 소속 근재 감사가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기타사항 토론시 대의원들의 임기 만료까지는 계속 감사직을 맡아줄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근재 감사가 수락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갈수록 대의원들의 대중회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향후 대중회의 더 발전적인 촉매제로, 대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견제와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라고 하겠다. 대의원 정기총회는 오후 3시가 되어 제호의 안건들을 원안 의결하고 점심도 잊은 채 이어진 4시간여의 회의를 폐회하였다.

금일의 대의원총회에 앞서 2024년 3월 6일(수) 10시 30분 대중회 지하1층 회의실에서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3시간여에 걸친 임원들의 열띤 심의 끝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들을 확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대중회 단신

4인의 본문(本門) 현종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일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이씨 국회의원 후보자는 모두 4명으로 국민의 힘 당 이종배 의원이 충주시 지역에서 4선에,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이 서울시 서대문구갑 지역에서 3선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서울시 강동구 을 지역에서 재선에, 개혁신당 이준석 현종이 경기도 화성시를 지역에서 도전한다.

대중회 상근 임원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광주이씨 종인 4명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독려하고 응원하였다. 우리 광주이씨를 빛낼 4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

강동문화원방문 업무협의

제13회 둔촌 백일장 시행계획 및 관내 둔촌선생 관련 유적지관리와 관련 업무의 협의

를 위해 3월 18일 11시 30분 강동 문화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강동문화원의 요청으로 상호간 업무협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중회는 둔굴 및 일자산 해맞이 광장 정비를 구청에서 시행토록, 문화원에서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송파구에 소재한 둔촌생가터 표지석을 강동구 둔촌동 지역으로 이전토록 협조 요청하였다.

한편 강동문화원에서는 광주이씨 관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중회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둔촌선생께서 생전에 거주하셨던 강동인 만큼 앞으로도 상호간 많은 대화와 실천을 통해 협조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모재 담장 보수공사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둔촌선생 재실 추모재담장보수 정비사업을 3

월 중 실시 설계완료 후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늦어도 7월까지의 보수공사 완료하기로 하였다.

본 공사는 경기도 예산 1억 1백만원, 성남시 예산 1억 1백만원 등 총 총공사비 2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모재 담장 전체를 신축 공사하게 된다. 본 공사는 성남시의 관심과 지원, 성남 문화원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광주이씨 후손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대중회는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꾸면서 2세를 출산하는 종인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광주이씨 후손으로 며느리 및 출가녀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우선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므로 많은 장려금은 아니나 점차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범위 등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지파중회 소식

사인공파중회

■ 사인공파중회 정기총회 개최

사인공파중회(회장 용화)는 2024년 2월 29일 (목) 오전 11시 창녕군 창녕읍 당산길 10 소재, 운곡재(雲谷齋)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무이사의 성원보고와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회장 인사와 총무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는 다음, 의안 상정으로 2023년 수지·결산 승인과 2024년도 수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다.



그리고 용찬 재무이사의 중회 건물 누수공사·지붕물통공사, 정화조공사 및 임차인 관련 사항 등 전반적인 건물 관리에 따른 상세한 설명으로

많은 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종철 종인은 보다 많은 종인들이 <광이희보>를 구독하여 중회 동향을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끝으로 용화 회장은 전 종원의 화합 단결 및 청장년 육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중무에 모든 종인들이 1년에 4~5일 정도 만이라도 중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중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총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1층 옥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반주로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었다.

- 사인공파중회 회장 용화 회

광릉부원군파중회

■ 2024년도 대의원 정기 총회 개최

광릉부원군파 중회(회장 봉수)에서는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3월 21일 중회 회의실 4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전원, 그리고 대의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하였다. 회순은 개회, 성원 보고, 개회 선언, 국민의례, 회장 인

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부의 안전심의, 기타 안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상정된 부의안건은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승인을 얻었다. 기타 안전으로 봉수 회장의 임기가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 7일 임원회의에서의 토론 결과 연임 규정에 의거 봉수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하기로 하여, 이번 대의원 총회 상정에서 이견 없이 재적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다. 그리고 집행부는 모두 유임되었으며 감사에 장래 현종과 증봉 현종이 선출되었다.



■ 광릉부원군파 이언공계 종회장 주훈 현종 선출

광릉부원군파종회 산하 김포 이언공계 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주훈 현종을 신임 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주훈 회장은 금년 68세로 인천광역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종사에 큰 관심과 선조

님 숭조에도 남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 종인이다. 또한 부회장은 종구 현종과, 이수 현종 그리고 총무에 영수 현종, 재무에 종범 현종이 각각 유임되었다.

한편 이언공 종회에서는 3월 28일 주훈 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원, 광릉부원군 파조님 부조묘를 방문하여 고유제를 올리고, 할아버님의 고명하시고 승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맡은바 종사에 소임을 다할 것을 선약하였다.



이언공종회 고유제 봉행을 마치고

■ 상해(上海) 육삼정의거(六三亭義舉) 91주년 기념식 거행



상해(上海) 육삼정의거(六三亭義舉) 91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4년 3월 17일 상해 육삼정 의거 91주년 기념 행사를 충북 제천시 봉양면 원바리 소재, 박달재 공원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날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승용차와 임대버스를 이용하여 50여 명의 종인들이 참석하여 행사에 함께하였다.

특히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시하 총무, 그리고 광릉부원군파종회 前 공군장성 광수(光洙, 23대손) 소장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었다.

행사장소인 천둥산 마루 박달재는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16대 후손인 애국지사 용태(容兌), 용준(容俊) 지사 형제분의 고향으로, 광장에는 충청북도 보훈청에서 애국지사 형제분의 흉상을 건립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오전 9시 30분 광릉부원군파종회 사무실(강동구 명일동)을 출발한 일행은 2시간을 달려 11시 30분경에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자리를 정리한 이후 문수 총무의 진행에 따라 국민의례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단암 용태, 여산 용준 선생 영령에 대한 묵념 - 애국가 제창 - 봉수 회장 기념사 - 문수 총무의 상해 육삼정 의거 설명 - 헌화 - 만세 삼창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광릉부원군파종회 종인들은 선조의 얼을 되새기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보훈의 달에 유적지 및 영령들이 잠들어 계시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육삼정 의거는 1933년 3월 17일 상해 육삼정

고급 요리집에서 일본 주중 공사(아리요시 아키)를 폭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주중 일본 공사 아리요시가 중국 정부 요인을 매수공작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시 남화한인청년 연맹 행동단체인 흑색 공포단 소속 이강훈 의사, 백정기 의사, 원심창 의사, 이용준 의사 등이 일본 공사를 암살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여산 용준 선생께서는 이때 폭탄과 권총을 운반하는 일을 맡아 행동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실패하였다.

○ 육삼정의거(六三亭義舉)

백정기 · 이강훈 · 원심창 지사 등이, 1933년 3월 17일 중국요리점인 '육삼정(六三亭)'에서 중국정부 요인 매수를 목적으로, 연회를 개최한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를 처단하려 한 사건이다. 1933년 3월 원심창 지사는 일본 육군대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를 중심으로 주중공사 아리요시에게 2천만 불이라는 거액을 주어 러허성(熱河省)을 근거로 반만항일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군과 독립군을 탄압하려는 정보를 입수했다. 또한 아리요시가 국민정부 내 고급 장성(將星)을 매수하고자 상하이 공동조계에 있는 육삼정(六三亭)이란 고급 요리점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도 알아냈다.

의거를 주도한 백정기와 이강훈 등은 1930년 유기석 · 장도선 등 아나키스트들이 적 기관 파괴 및 요인 처단 등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 남화한인청년연맹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이들은

한중일(韓中日)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전선 조직인 항일구국연맹에 가입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1931년 결성된 항일구국연맹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회영 · 백정기 등 7명과 중국측 왕야차오(王亞樵)와 화진스(華均實) 등 7명, 일본측 사노 이치로(佐野一郎)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였다.

1933년 3월 5일 아리요시가 상하이 공동조계에 방문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항일구국연맹 인사 정화암 · 원심창 · 엄순봉 · 이강훈 · 이달 · 박기성 · 정해리 · 야타베(失田夫) 등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백정기 · 이강훈 · 원심창 등이 중심이 되어 아리요시 등을 처단하기로 결정했다.

육삼정의거에 사용할 폭탄은 윤봉길이 홍콩우공원(虹口公園) 의거 당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홍콩우공원 의거 이후 김구가 상하이를 떠나 자싱(嘉興)으로 이동할 때 오면직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와 함께 중국인 왕야차오와 화진스가 마련한 권총 2자루와 탄환 20발, 그리고 수류탄 1개도 받았다.

1933년 3월 9일 아리요시의 모임장소가 홍콩우 소재 요리점 육삼정인 것과 차량의 번호가 4684와 6743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3월 12일 원심창과 야타베가 현장을 답사하였고, 13일 밤 백정기와 이강훈이 거사현장이 될 곳을 돌아본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육삼정에서 나와서 아리요시가 전용차를 타는 순간 폭탄을 던지기로 하여 이강훈이 먼저 도시락형 폭탄을 던져 경호원부터 처리하고 다음 백정기가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었다. 저항이 있을 경우 각자가 휴대한 권총을 가지고 대응하며 도주하고 집결지점에서 만나 탈주하고 남은 동지들과 연락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 장소는 육삼정에서 약 200m 떨어진 우창로(武昌路) 소재 중국 요리점 송강춘으로 정했다. 그러나 의거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송강춘에서 백정기와 이강훈이 붙잡혔고 원심창은 망을 보다가 함께 일제 경찰에게 피체됐다.

백정기와 원심창은 나가사키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강훈은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이강훈과 원심창은 광복 후 석방되었으나 백정기는 1934년 6월 5일 39세로 옥중에서 순국하여 광복 후 윤봉길 · 이봉창 의사와 함께 1946년 국내로 봉환하여 효창공원에 안장됐다(국회독립운동

<다음페이지에 계속>



독립운동가 용태(容兌), 용준(容俊) 지사의 흉상

사적지 발체). 참고로 일제에 항거한 3대 의거는 ① 1922년 3월 28일 이종암 선생, 김익상 선생, 오성륜 선생이 일본장군 다나카를 황포탄에서 암살 하려다 실패한 황포탄 의거 ②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 폭탄의거 ③ 1933년 3월 17일 육삼정 의거를 말한다.

○ 독립운동가 용태(容兌), 용준(容俊) 지사

독립운동가 용태(容兌 1890. 8. 12 ~ 1966. 8. 15) 지사는 광릉부원군(휘 극배)의 16대손으로 1890년 8월 12일 충북 제천군 광동(廣洞)에서 출생하였다. 광릉부원군의 3자 부제학공(諱 世罔)의 15대 종손으로, 혈통상으로는 문경공의 5대손 광남군(諱 光岳)의 3자 자헌대부 공조판서겸 도총관 근영(諱 根永)의 후예이다. 선생은 어려서 습재(習齋) 이직신(李直愼)선생 문하에서 한학을 전공한 다음, 그 후 뛰어난 문장과 인품으로 충북 제천군내의 봉양면장과 백운면장을 수입받았다.

제천군 백운면장(白雲面長)으로 재직하던 중,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1928년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1939년 4월 만주로 망명하여 대종교 총본

사에서, 제3세 교주 윤세복(尹世復)으로부터 대종교에 관한 해설을 듣고, 독립운동에 참여할 결심으로 참교(參敎)가 되었다가 전교로 승진하였으며, 그 후 경의원장(經議院長)이라는 중책을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1942년 11월 일제의 대종교 말살정책으로 간부 24명과 함께 체포되어, 목단강 액하(牧丹江液河) 감옥에서 윤세복(尹世復)·이재유(李在裕)·안희제(安熙濟)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목단강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월 조국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 훈서)을 추서하였다.

또한 용준(容俊 1907. 8. 16 ~ 1946. 1. 15) 지사는 광릉부원군(諱 克培)의 16대손으로 1907년 8월 16일 충북 제천(堤川) 봉양면 출신이며, 단암(檀岩) 이용태(李容兌) 지사(志士)의 실제(實弟)이다. 1925년 3월 백운(白雲)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중앙고보(京城中央高普)에 입학하였다가 교내학생운동을 주동하여, 1925년 4월 퇴학을 당하고 제천군청에 근무하다가, 신간회(新

幹會)에 가담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동아일보 봉천(奉天)지국 보급원으로 만주로 건너갔으며, 1931년 다시 북경(北京)으로 옮겨가 원심창(元心昌)의 권유로, 무정부주의 운동에 종사할 것을 결심하고 상해로 갔다. 1931년 5월 상해(上海)에 있는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에 가입하여, 무력적인 항일투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그 실행 부원이 되어 혁명적 역할을 담당할 결심으로, 백정기(白貞基)의 권유에 의거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에 입단하였다. 그리고 백정기의 제안에 따라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순봉(嚴舜奉)·김성수(金聖秀)와 함께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사변이 발생하자 일시 피신하였다가, 일제 침략 원흉의 암살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동년 12월에는 유기석(柳基石)의 권유로 천진 일본총영사관에 수류탄을 던졌으나, 큰 피해는 입히지 못하고 일부를 파괴하는데 그쳤다. 1933년 3월에 상해에서 일본공사 유길명(有吉明)의 암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35년 3월에는 정화암(鄭華岩)과 함께 엄형순·이규창(李圭昌) 등으로 하여금, 상해 거류민회 부회장인 친일파 이용로(李容魯)를 총살 처형하도록 하였다.

1937년에는 중경(重慶)에서 조직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에 가입하여, 중앙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계속 항일투쟁에 여념이 없던 선생은, 1938년 12월 18일 마침내 유길명 공사의 암살계획 혐의로 북경(北京)에서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본국으로 압송된 그는 1940년 11월 20일에 경성(京城)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강도미수, 폭발물 취급법 위반 및 살인미수라는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 훈서)을 추서하였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기

문경공파종회

**■ 문경공파종회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문경공파종회(회장 경수)에서는 2024년 3월 28일(목)에 2024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종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가산동 신규 사무실로 이사하고 처음 개최하는 총회로 부산, 남원, 고창, 전주, 충주 등 경향 각지에서 불순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출발하여 정시에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대의원 총원 29명 중에서 1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이날 대의원 정기총회에 처음 참석한 문경공파 탄수공계 종대, 승덕공계 영희 대의원의 소개 및 인사

가 있었다.

회장 인사말에서 경수 회장은 “다 함께 가는 종회, 건강한 종회, 정직한 종회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13일(수)에 개최하였던 임원회의에서 심의한 경과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께 보고하고 토의하였다.

부의 안건에서는 1)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 2024년도 사업계획(안),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다.

기타 토의 사항에서는 갈수록 노후화되어 가는 스카이2 원룸에 대한 대책 및 예산 절약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스카이2 원룸은 매각을 하여서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대체 자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고, 예산 절약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검토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총회를 마친 대의원 및 참석하신 임원들과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주류로 오찬을 나누면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총회를 마무리 지었다.

- 문경공파종회 총무이사 종민 기

■ 정재공(諱 守貞)종회 성묘 다녀오다



문경공파 정재공(貞齋公) 종회(회장 경수)는 2월 27일 11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소재 정재공 선조 묘소에 성묘를 다녀왔다. 공은 첫째 병조판서 승덕재 윤경(潤慶)과 둘째 동고상공 준경(浚慶)의 두 아들을 슬하에 두었다.

성묘를 마친 일행은 인근의 승덕재 묘소, 동고상공, 상공의 아드님인 광흥창수공 예열(禮悅) 도승지 양호당공 덕열(德悅)의 묘소를 차례로 성묘하였다. 이날 성묘에는 정재공종회 경수 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정재공 종회 덕수 총무,

승덕재공종회 상훈 회장, 영희 총무, 동고종회 근배 회장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양호당공종회 위례 회장, 화래 부회장, 방래 감사, 문경공종회 종민 총무, 종덕 재무, 승덕재공종회 정훈 현종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참배를 마친 일행은 덕수 총무의 안내로 양평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난 매운탕 집에서 소주를 곁들이며 종친간 덕목의 시간을 가졌다.

○ 정재공의 자는 간중(幹仲)이고 휘는 수정(諱 守貞)이며, 호는 정재(貞齋) 또는 소한재(素寒齋)이니, 성종 정유(1477)년 5월 6일 광양군(廣陽君 諱 世左)의 넷째아들로 탄생하였다.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선생에게서 배워 재기(才器)와 학술(學術)로 사우(師友)간에 추앙하여 존경함을 받았으며,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선생과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선생과는 가장 젊은 벗으로서 제일 가깝게 의리로 사귀었다.

연산 신유(1501)년 생원·진사시에 장원하고, 같은 해 23인 중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승정원 주서(承政院主書), 봉상시 주부(奉嘗寺主簿)를 거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뽑혀 동학교수(東學教授)와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지제교(知製敎)를 겸(兼)하였다. 연산 무오(1489)년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온 집안이 귀양 가는 화(禍)를 당하였으며, 갑자사화(1504)에 종조부(從祖父)이신 좌의정공(諱 克均)과 부친이신 광

양군(廣陽君 諱 世佐) 형제가 참형을 당하시고, 5월 13일 공의 4형제가 다 함께 참형(斬刑)을 당하니 향년 28세였다.

이때 공의 큰 아들 윤경(潤慶 崇德齋公)은 7세였고, 둘째 아들 준경(浚慶 東阜相公)은 6세로 충북 괴산 청안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설원(雪冤)되어, 도승지 겸 홍문관 부제학(都承旨兼弘文館副提學)에 증직(贈職)되었고, 명종조에 이르러 둘째 아드님 동고상공의 현달로, 영의정 겸 세자사(領議政兼世子師)의 증직(贈職)을 더 하였다. 묘는 양근 용진면 목을동 차항 경좌(楊根龍津面木栗洞車項庚坐) 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78-2)이다.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상서원 판관(常瑞院判官) 승연(諱 承演)의 따님이며, 좌의정 자수(左議政自守)의 증손녀인데, 아름답고 뛰어난 덕(德)이 있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항상 이르기를 「과부의 자식은 남이 더 붙어 사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반드시 학문에 열 갑절을 더 부지런히 하여서 너의 집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 경자(庚子 1480)년에 탄생하여, 중종 갑신(甲申 1524)년 1월 25일 서거(逝去)하니, 향년 45세로 공과 합장(合葬)하였으며 슬하에 2남을 두었다.

- 정재공종회 총무이사 덕수記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파종회 2024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4년 3월 5일(화) 고문자문회의에서 2024년도 종회의 사업 및 운영방향 등의 고견을 구하고, 3월 11일에 제1차 임원회의에서는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안을 토의, 심의하였으며, 3월 22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광주시 자월리 재실(영모재)에서 개최하

였다.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었고, 개회선언- 감사보고- 부의안건으로는 2023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지월리 선산 광천부원군(諱 克增) 선조님 묘소 아래 잔디가 고사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024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어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임원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자리를 광주시내 식당으로 옮겨 회의에서 나누지 못했던 사안과 환담을



나누며 종회 발전적인 방향도 얘기하며, 각 지역 종회의 사정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하며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임원, 대의원의 건강을 빌며 종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종두記

광원군파종회

■ 광원군파종회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이석래 회장

2024년 3월 28일(목) 광원군파종회는 대의원 27명과 집행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승인하였다. 이어 기타 안건으로 지난 3년 동안 봉사한 용철 종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공계 석래(錫來) 현종을 제13대 광원군파종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광원군파종회 제13대 석래(錫來) 신임회장은 그동안의 종회 활동을 바탕으로 첫째 종인들을 주인으로 서로 간 친목하고 화합하는 종회, 둘째 광원회관을 비롯한 종재의 철저한 관리. 셋째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종회 운영. 넷째 선조의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숭수수범하는 자세. 다섯째 대총회를 비롯한 여타의

지파 종회 등과 신뢰하며 소통하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운영 방침을 피력하였다.

신임 석래(錫來) 회장은 1950년 1월 광주이씨 양진재공 후손들의 집성촌인 전남 보성군 북내면 용전리에서 출생하여 (주)화랑이엔시 임원을 끝으로 직장 생활을 마감하였다.

회장은 2005년 광일회(감사공 자손들의 모임) 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종사에 관심과 종무를 시작하여 광일회 회장(4년), 감사공종회 회장(6년), 광원군파종회 재무이사(9년)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대총회 대의원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 광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응재記

관찰사공중회

■ 관찰사공 중회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관찰사공중회(회장 재석)는 3월 28일 광이회관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30명중 26명, 임원 22명 중 20명, 고문 2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2023년도 결산서 승인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후 승인하고 규약 일부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식사를 하며 화합과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관찰사공 총무이사 종우 기

참판공파중회

■ 참판공파 중회 2024년 대의원 총회 개최

참판공파 중회(회장 선래)는 지난 3월 25일(월) 2024년도 대의원 총회를 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중회고문을 비롯한 임원 대의원 등 총 26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 하였으며 선래 회장은 참석자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였으며 용 총무의 경과보고와 증성 감사의 감사 결과보고에 이어 총무의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기타 산소관리와 정비사업 등을 토의 한 후 대의원 정기총회를 종료 하였다.

- 참판공파 총무 용 기



좌통례공파중회

■ 좌통례공파중회 2024년 대의원 정기총회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2시에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광이회관 회의실에서 좌통례공파중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택수 회장을 의장으로 고문(재진, 선래, 효석), 감사(상철, 용면), 대의원 대구·칠곡 8명, 강원·충청 2명, 서울 6명과 임원 12명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는 회장의 개회 선언, 국민의례, 회장 인사 말씀 그리고 용주 총무이사의 경과보고, 용면 감사의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현양사업 건)과 세입·세출 예산안(案)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3시 30분경 폐회하였다.

- 좌통례공파 총무이사 용주 기

중부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 신협 3층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이씨 중부지구 화수회(회장 주복) 제56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중부지구 화수회는 “백대지친 광주이씨”란 이름 아래 1965년 발족 되었다.

현재 화수회원은 220명이며 지구 범위는 경기도 이천시, 충북 음성군, 충북 충주시 일원에 살고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하지 않아도 고향을 두고 타지역으로 출타하여 살고있는 회원들도 참가 대상이 되어, 뜻있는 분은 참석하여 일가 간의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현재 화수회 내에는 지역별로 7개 지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지구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총회는 1년에 1회, 임원회는 7개 지구로 분기별 1회, 그외 광이 며느리계 모임도 활성화 되어 지난 3월 30일 봄 단합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갖고 활동하는 중부화수회 금번 56회 정기총회는 대총회 용두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양재 총무이사, 주병 문화이사와 문경공파중회 경수회장, 광원군파중회 용철회장 등 많은 내빈과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지구 윤희회장 인사, 화수회장 인사, 대총회 상임부회장 축사, 문경공파중회 회장 축사, 광원



군파중회 회장 축사 및 보화강의 등 뜻깊은 정기총회를 마쳤다.

- 중부화수회 총무 종태 기

둔촌시선

自貽(자이)

자신에게 부치다

老來步步漸欹斜(노래보보점의사)

行止還如狗喪家(행지환여구상가)

床上文書將底用(상상문서장저용)

如今抱病眼昏花(여금포병안혼화)

늙어지니 걸음걸이 점점 비틀거리지는데

오가는 꼬락서니 집잃은 개와도 같네

책상위의 책들은 어디다 쓸것인가

지금은 병이들고 누마져 침침한걸

註) 집 잃은 개(喪家之狗) : 먹이를 얻어먹지 못한 상가집의 개라는 뜻으로 공자가 사방을 돌아다닐 때 초라한 모습을 제인(齊人)들이 형용한 말이다.(壘壘如喪家之狗)

제43회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이씨 재경화수회(회장 충교)에서는 2024년 3월 15일 6시 재경화수회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회원 6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개최되었다. 시하 총무의 진행으로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 - 회장 인사 - 경과보고 - 재무보고 -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의안건에서는 2023년 수입 지출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안)의결 승인 건을 통과시켰다. 재경화수

회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회칙내용에 현실과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자구수정하는 (안)도 전원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공지사항에서 4월부터 9월까지의 하절기에 들어가니 월례회의 시간을 6시 30분으로 정하겠다는 공지가 있었다. 총회가 폐회되고 각 계 별로 만찬장으로 이동하여 식사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작년 한해 재경 화수회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노력 기대한다.



제26회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산악회 시산제 봉행



재경화수회 광이산악회(회장 종철)는 청명한 날씨속에 2024년 3월 24일(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일자산 해맞이 공원에서 광주이씨문중의 화합과 산의 정기와 인간의 정기를 조화시키고 산행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산제(始山祭) 행사를 가졌다. 둔촌선생의 정훈비가 세워져 있는 공원에서 참가자들은 선생의 뜻을 기리며 음덕이라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사를 마쳤다. 시산제에 앞서 광이산악회 종철 회장은 인사에서 “2024년 갑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제26회 광이 산악회 시산제를 올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이씨는 일백 백(百), 대 대(代), 갈지(之), 친할 친(親), 백대지친(百代之親)의 신조를 가지고 선대부터 친하게 지내온 아주 가까운 친분으로 이어져, 모든 광주이씨의 자부심을 가지고, 옛 조상을 섬김으로써 후손 대대로 이어져 온 광주이씨 자랑이라고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이씨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생활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 시간 사정으로 대총회 용두 상임부회장과 재진 전대총회 도유사의 격려사를 하고 시산제 봉행을 하였다. 시산제에는 광천부원군파종회 종성 부회

장의 집례로 초헌관에 종철 산악회장, 아헌관에 화수회 종교회장, 종헌관에 용위 산악회 전회장, 우집사 문재 현종, 좌집사 종경 현종, 축문에 중두 총무께서 수고해 주었다.

이날 시산제에는 대총회 용두 상임부회장, 재경화수회 종교 회장, 대총회 재진 전도유사, 광이산악회 용위 전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석탄공파종회 만술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종길 화수회장, 외빈으로 강동 문화원 신동명 원장을 비롯한 각 지파 회장 등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착한나지 식당” 에서 반주를 곁드린 식사로 정담을 나누며 산악회에서 준비한 떡과 기념품을 받아 친목과 화합으로 시간을 가졌다. 시산제 행사에 많은 종인들이 격려금을 성금 해주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시산제에 협찬해 주신분 명단

-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100,000원
- 광릉부원군파종회 200,000원
-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100,000원
- 광릉부원군파종회 부제학공계 100,000원
- 광릉부원군파종회 대생령종회 복수 전회장 100,000원

- 광릉부원군파종회 이언공종회 주돈 전회장 100,000원
-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 종길 회장 100,000원
-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100,000원
-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100,000원
-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100,000원
- 광원군파종회 부사공계 은재 회장 100,000원
- 광원군파종회 감사공계 석래 회장 100,000원
- 광원군파종회 도정공계 100,000원
-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100,000원
- 참판공파종회 100,000원
- 좌통례공파종회 100,000원
- 목사공파종회 병진 대총회 부회장 100,000원
- 석탄공파종회 만술 회장 200,000원
- 강동문화원 신동명 원장 100,000원
- 재경화수회 기우회 100,000원
- 서울청장년회 100,000원
- 서울청장년회 홍수 회장 100,000원
- 서울청장년회 용승 총무 100,000원
- 광이산악회 종철 회장 200,000원
- 광이산악회 용위 전회장 100,000원
- 대총회 주홍 재무이사 100,000원
- 대총회 양재 총무이사 50,000원

광이 산악회 4월 산행 행사 안내

- 일시 : 2024년 4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 정시 출발
- 장소 : 경기 부천 원미산 산행
- 집결 :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밖
- 코스 : 부천운동장 → 진달래 동산 → 원미정 쉼터 → 부천역
- 거리 : 약 6km (2시간 30분 소요)
- 준비물 : 개인 간식, 따뜻한 물, 기호식품
- 개인의 안전책임은 각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이산악회 산악대장 종덕記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 정기총회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회장 용위)는 2024년 3월 11(월)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정

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 울산, 대구, 대전에서도 멀다하지 않고 참석하여 열의와 관심으로 알찬 회의를 할 수 있었다. 회의에 앞서 대종회 주영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유족회의 발전을 격려 하면서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정기총회 안건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 감사보고,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확정하였다. 신입회원으로 좌통례공 16대손 필영(弼榮) 순국지사(2024. 3. 1 서훈)의 손자인 남석(울산 거주) 현종을 소개하자 회원들은 많은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대종회에서 준비한 식당을 찾아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거운 식사를 한 후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4월호 호국인물 이필영(弼榮) 순국지사를 소개키로 하였다.

- 유족회 총무 호순記

이달의 호국인물 독립유공자 이필영(李弼榮) 순국지사



이필영 선생(뒷줄 왼쪽 첫번째)

원마을에서 태어났다. 매원마을은 조선조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영남 3대 반촌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광주이씨 동족마을이다.

필영 지사는 영남지방에서 민족자본으로 최초로 설립된 사학인 대구교남학교에서 수학 후 향리로 돌아와 1927년(당시 21세) 문중(門中) 재실 사송헌에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50여 명의 농민 자녀들에게 신식교육과 민족의식고취 활동을 하던 중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금지되었다.(조선일보 1938. 10. 30자 기사 참조)

1932년 정행돈, 이창기, 이두석 지사와 함께 청년 동지회를 조직하여 사설 강습회, 농촌계몽운동, 독서회를 통한 한글강습 활동 등 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자존정신 함양과 배일사상 고취 활동에 주력하였다. 1938년 2월 19일 "왜관비밀결사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석, 정행돈, 도병철, 박몽득 등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내 한몸 희생하더라도 많은 동지들을 구해야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끝끝내 사건내용을 함구하며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의 고문은 더욱 혹독하게 가해져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1939년 11월 4

일 석방되었으나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말문을 닫은 으스스한 몸을 자택에서 가족의 정성어린 간호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상처가 심한 탓으로 끝내 건강을 회복치 못하고 애석하게도 석방된지 7개월 만인 1940년 6월 16일 향년 34세의 일기로 순국하였다.

"왜관비밀결사사건"은 당시 일본이 중일전쟁 및 인도차이나 반도 등에서 전쟁에 몰두하는 것을 기회로 후방을 교란시켜 일본을 패전으로 이끄는 데 한 몫을 함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이를 목적으로 조직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한 사건이다. '왜관비밀결사'는 농민, 노동조합과 야학회, 독서회, 부녀회 등을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군 내부 분열공작 및 노동자의 투쟁으로 군대와 군수품의 수송, 군수품 생산과 공급 방해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였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24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묘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동 소완정 선영이다.

지사의 계보는

唐 - 集 - 之直 - 禮孫 - 克堅 - 摯 - 德符 - 熙復 - 潤雨 - 道長 - 元祿 - 周命 - 世濤 - 啓中 - 東協 - 觀運 - 以諧 - 昌淵 - 相基 - 弼榮이다.

충민공(諱 尙安) 서세 397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원군파종회 충민공종회(회장 종삼)에서는 2024년 3월 1일(금) 오전 11시 충민공(諱 尙安) 서세 397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례 봉행에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석래 부회장,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 좌의정공파 종회 시하 총무, 문

경공파 종회 명수 현종 등 본·방손 4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제례 봉행전 충민공종회 찬수 총무의 진행으로 종삼 종회장의 인사와 참사 종인 소개가 있었다. 이어진 제례 봉행에는 초헌에 충민공종회 종삼 회장, 아헌에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종헌에 청정공 종회 천수 회장, 축에 문경공파 명수 현종,

집례에 도정공종회 택재 총무, 좌집사에 형수·태수 현종, 우집사에 경재·종태 현종, 집례에 도정공종회 택재 총무가 수고해 주었다. 불천위제를 마친 후손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충민공의 휘는 상안(尙安)이고, 자는 정이

(靜而)이다. 며, 선계(先系)는 광주(廣州) 사람이다. 아버지는 충의위(忠義衛) 이광록(李匡祿)이고 어머니는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사인(士人) 권적(權適)의 딸이자 판관(判官) 권집(權諶)의 손녀인데 만력(萬曆)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선조 8년) 4월 3일[辛未]에 공을 낳았다. 큰아버지 현감공(縣監公 諱 匡國)의 부인은 청주 한씨(淸州韓氏)로 정국 공신(靖國功臣)에 책훈되고 영흥 부사(永興府使)를 지낸 한세창(韓世昌)의 손녀이자 충의위(忠義衛) 한개(韓蓋)의 딸인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강직하고 깨끗하였다. 계묘년(癸卯年, 1603년 선조 36년) 식년 무과(式年武科)에 급제하였으며, 갑진년(甲辰年, 1604년 선조 37년)에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받았다. 병오년(丙午年, 1606년 선조 39년)에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고, 경술년(庚戌年,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는 무신(武臣) 겸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으며, 신해년(辛亥年, 1611년 광해군 3년)에 외간상(外艱喪)을 당하였다. 복기(服葦)가 끝나자 훈련원 습독(訓練院習讀)이 되었고, 을묘년(乙卯年, 1615년 광해군 7년)에는 해주 판관(海州判官)으로 옮겨다가 얼마 뒤에 병이 들어 면직되었다.

병진년(丙辰年, 1616년 광해군 8년)에는 진도 군수(珍島郡守)에 임명되었다가 채 부임하기 전에 공산 군수(公山郡守)로 옮겨 임명되었다. 무오년(戊午年, 1618년 광해군 10년)에는 또 가산 군수(嘉山郡守)로 옮겨 임명되었는데 서쪽 변방을 중요시하여 공을 그곳에 임명한 것이었다. 공은 가산군에 부임하여 해묵은 폐단을 없애고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었으며 임기가 차서 갈리게 되자 고을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선정을 칭송하였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품계가 올라 창주 첨사(昌州僉使)가 되었는데, 치적이 유능하다고 알려져



충민공 불천위제를 마치고

서 여러 번 임금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해를 넘겨 강계 부사(江界府使)로 옮겨는데, 손을 씻은 후에 경건한 태도로 공무를 시작하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피곤함을 잊고 지냈으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군졸들에게 군량을 지급함에 있어 각기 조리가 있게 시행하였다.

임기가 차서 돌아오게 되자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이 공을 막부(幕府)에 서명(署名)하였는데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에 이르러 국난(國難)을 당하여 순사(殉死)하게 되었고, 공이 통솔하던 편비(褊裨)와 복레(僕隸)들도 모두 공을 따라서 죽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군자들은 이 일에서 공이 군사들의 힘을 얻은 것이 또 매우 깊었다는 점을 알았다.

노적(奴賊)들이 물러간 뒤에 공의 시신(屍身)이 있는 곳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여 성(城)에서 고복(梟復, 장례 때에 초혼(招魂)하고 발상(發喪)하는 의식)을 하고서 광주(廣州)의 선산(先山)에

의관(衣冠)을 귀장(歸葬)하였는데 묘좌 유향(卯坐酉向)의 언덕(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7-1)이다. 공은 향년이 53세였고 성(城)이 함락 당한 날을 공의 제삿날로 삼았는데 곧 정월 21일이다. 현재 묘역은 정경부인 청주한씨와의 원형 쌍분으로 특이하게 봉분이 맞붙어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정려각이 있다. 상남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고 송정대부 우찬성(崇政大夫右贊成)에 추증되었으며 남이흥과 더불어 안주의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되었다. 신도비의 비문은 이경석(李景奭)이 짓고 이기수(李基守)가 추기하였다. 1631년 처음 세워놓았던 구비의 경우 글씨를 쓴 사람은 사위인 이식(李植)이며, 전자(篆者)는 김광현(金光炫)이다. 반면, 1839년 개수한 새 비의 글씨를 쓴 사람은 이기렴(李基廉)이며, 전자(篆者)는 이상중(李尙中)이다.

- 충민공 충무이사 응재 記

보촌서원(浦村書院) 춘향제(春享祭) 봉행

광주이씨 참판공파종회(회장 선래)에서는 2024년 4월 2일(화). 전남 영광군 군남면 소재 보촌서원에서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서울에서는 아침 일찍 버스를 임대하여 종인들을 태우고 한편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향제가 행해지는 장소로 출발하였다. 도착하였을 때는 유림 현지 종인들이 봉행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다행히 시간에 늦지 않아 관계자들에게 누를 범하는 예를 피하니 다행이라는 안도의 숨이 나온다.

이날 춘향제에 참석한 우리 종친들은 80여인에 달하니 전례없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날씨가 푸근해지기 시작하고 농번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이날 참석한 종인들은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주홍 재무이사,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참판공파종회 고문), 광릉부원군파종화 봉수 회장,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종교회장, 좌통례공파 종회 택수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전남종친회와 보성종친회에서 약 80여 명의 종친들이 참여하였고 영광유림에서 주관하여 엄숙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11시 경부터 시작된 제례의 봉행은 초헌관에 남상술, 아헌관에 김옥환, 종헌관에 김진선, 축관에 정현중, 집례에는 이충원 유림들께서 보촌서원 박래호 원장의 주관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였다.

보촌서원(浦村書院)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서감마을에 있는 보촌서원은 1782년(정조 6)에 향중 유림의 발의로 광주이씨 음애공(陰厓公) 은(閔), 이화정공(梨花亭公) 안례(安禮), 오휴당공(五休堂公) 룰(樸) 등의 유품 진작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군내면 보리리에 보촌사(浦村祠)를 건립하고 향사해 오다가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된 뒤, 1927년에 설단하였다가, 광복 후인 1946년 현 소재지인 군남면 동간리 오감마을에 사우를 증건하고 서감사라 개액(改額)하였다. 1986년 봄에 군남면 동간리 407-1번지 현 소재지에 신축하여 보촌서원이라 환액하고 동시

에 이·예·공조참판공(吏·禮·工曹參判公) 극기(克基)를 주벽으로 봉향기로 유론을 모아 향천 사장관(鄉薦 四掌官), 성균관의 천(薦)을 얻어 무진(戊辰 1988) 춘향제(春享祭)을 기해 주벽으로 봉안하였다. 매년 3월과 9월의 중정일에 제향해 오고 있다.

1) 주벽 참판공 극기(參判公 克基, 1426~1489)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자는 자안(子安)이다. 집(集)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지직(之直)이다.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예손(禮孫)이며, 어머니는 박서(朴曙)의 딸이다. 생원시를 거쳐 1453년(단종 1) 식년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고 권지승문원정자에 제수되었다.

1455년(세조 1)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5년에는 사헌부장령으로서 좌부승지 이영은(李永垠)과 함께 《경국대전》 이전(吏典)을 수교했으며, 곧 증부시소윤으로 올랐다. 1466년 의정부검상을 역임했다. 1469년(예종 1)에는 사십시부정으로 삼포에 파견되어 왜사신접대사(倭使臣接待事)를 안했다.

1470년(성종 1) 문학 진흥을 위해 재행(才行)을 겸비한 인물을 치부(置簿)했다가 겸예문관관(兼藝文館官)에 제수하는 겸예문관제가 실시되어 이에 선발되었다. 1471년 1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한명회(韓明澮)가 “경명행수자(經明行修者)이니 사표직(師表職)에 제수해야 한다.” 고 그를 천거하였다. 그 해 2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면서 강원도관찰사로 파견되었다. 1471년 3월 강원도도사 최팔준(崔八俊)의 어육 증여와 관련되어 파직되었다. 그 해 11월에 성균관대사성으로 복직되었다. 곧 예문관부제학을 거쳐 1474년 8월에 승정원좌부승지로 발탁되었다. 이어 우승지와 좌승지를 역임했다.

1477년 8월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면서 재차 강원도관찰사로 파견되었다. 1478년에 대사헌으로 입조하였다. 1479년 5월에 이조참판, 8월에 한성부우윤을 역임했다. 그 해 윤 10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동지중추부사로서 하정부사(賀正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80년 5월 한성부좌윤, 곧이어 동지성균관사를 겸했다. 1481년 10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재차 하정사 겸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82년 11월에는 공조참판에 제수되고, 성균관 동지사를 계속하여 겸했다.

1485년 1월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오르면서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성균관생들이 “계속학업을지도하게 해달라.” 며강청(强請)하였다. 그러나 “치민(治民)도 교회(教誨)에 못지않다.” 는 성종의 뜻에 따라 부임하였다. 그 해 11월 동지중추부사로 입조하였다. 근근봉공(勤謹奉公)하는 성품과 성리학에 정통한 재질로 성균관의 교육에 힘써,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사유자(師儒者)로 칭송되었다.



보춘성원 춘향제 봉행

2) 음애공(陰厓公) 은(閔)

공의 자는 자화(子和), 호는 음애(陰厓)이고 이·예·공조참판 극기(諱 克基)를 아버지로 정부인 아산이씨 지중추부사 염의(愼念儀)의 따님을 어머니로 태어났다. 공은 단종 3년(1455)에 탄생하고, 어려서부터 성실하며 배움에 의지가 두터워, 성종 2년(1481)에 사마시에 오르고 건원릉 참봉(健元陵 參奉), 풍저봉사(豐儲倉 奉事) 사십직장(司贍寺 直長) 군기주부(軍器寺 主簿), 사헌부감찰(司憲府 監察), 공조좌랑(工曹 佐郎)을 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다.

중종 반정시에 형조정랑으로 매사를 공평하게 처결하고 내자 첨정(內資寺 僉正)으로 승진하고, 안성 군수로 나아가 재임 중 공과가 가장 우수하여 상의·선공 첨정으로 있다가, 중종 13년(1518)에 고원군수(高原郡守)로 제수받으니 고원이라는 곳은 고을이 고지대라 변두리 모든 백성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니 수년이 되었는데, 공이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공은 성품이 온화하고 솔직하며 관직에 계실 때에도 관속을 공경하시고 뜻에 맞지 아니한 바는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순조롭지 아니한 일을 겪었다. 공은 중종(中宗)시대에 현량과(賢良科)에도 참여하지 않고, 1519년 조광조를 도우다가 신진사류에 연좌되어 투옥되니 이른바 기묘사화(己卯士禍)이며 영광(靈光) 보촌(甫村)으로 귀양갔으며, 중종 17년(1522) 3월 적소(謫所)에서 여생을 마쳤다. 향년 68세이며 1782년에 영광 사람들이 보춘서원을 세워 봉향하여 오고 있다.

배위는 숙부인 한양조씨 찰방(察訪) 효손(孝孫)의 따님으로 어질고, 범절을 두루 갖추었으며, 4남 4녀를 두었다. 장자 희업(熙業)은 사헌부 감찰, 둘째 희광(熙廣)은 통덕랑 사직(司直)을 하고 이조참의에 증직되고, 셋째 희영(熙英)은 사십직장이고, 넷째 희경(熙敬)은 사과이다. 유명을 받들어 광주군 들마면 하대원리 백양 음촌원에 장사 지내고 동래인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이 비문을 지었다.

호음은 명(銘)에서 「평생 구차함이 없었는데, 죽어서 뒤를 원망하리, 이내 몸 영화가 없었거니, 또 무엇을 근심하리, 벼슬은 군수에 이르렀고, 목숨은 고희(古稀)까지 올랐네, 하물며 남긴 자취 아름답다우니, 느끼나니 좋은 길로 가셨으리, 이 산기슭 영기(靈氣)가 쌓였으니, 아! 이곳이 공이 잠든 유택(幽宅)일세, 봉분(封墳)을 수척(數尺) 높이 올리고, 비석을 세우나니 편석(片石)이네。」 라고 찬하였다.

3) 이화정공(梨花亭公) 안례(安禮)

공의 자는 문숙(文叔), 호는 이화정(梨花亭), 휘는 안례(安禮)이다. 아버지 중무위 사과 희경(諱熙敬)과 어머니 평창이씨(부사과의 따님)의 셋째 아들로 명종 10년(1555) 태어났다. 공은 뜻이 독실하고 재능이 뛰어나 안으로는 훌륭한 가풍을 이어받고, 밖으로는 사우(師友)간에 학문과 덕성을 갖추고, 많은 서책(書冊)을 읽어 학문이 풍부하여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급급(汲汲)하지 않고, 학문에만 오로지 하며 부모를 섬김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화평스런 안색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부모님 상(喪)을 당하여서는 서러워하심이 지나치므로, 조문객이 걱정을 하였으며 비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성묘(省墓)길을 계속하니 지극한 효성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이 성묘길에 눈을 쏟아 주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잠시 예봉(銳鋒)을 피하여 압해도(押海島)로 거처를 옮겨 갈근(葛根)으로 연명하면서 왜적의 동태를 살피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순신 장군에게 개진(開陳)하여 승첩(勝捷)을 거두는데 조력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또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마치 풍상(風霜)에 시달려 영클어진 초목처럼 생기(生氣)를 잃고 있었으며 민심이 어지러워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분한 분위기로 춘추사서(春秋史書) 등을 강학(講學)하고 후생들에게 시서와 오례(五禮)를 가르치고 남전여씨의 고사(古事)와 같이 동

리(洞里)에 향약(鄉約)을 시행하니 마을의 향속이 돈독하여 졌으므로 영광 고을 사람들이 “관서(關西)의 선생(先生)” 이라고 칭하였다.

학문과 덕행이 훌륭하므로 천거를 받아 예빈시 참봉의 행직과 첨지중추부사, 장악원정에 증직되고 인조 13년(1635)년 서거하니 향년 81세이며 보춘서원에 봉향하고 있다. 배위는 숙부인 영광 정씨(참의 士彦의 따님)이고 후배위는 숙부인 수원백씨(충무위 부사과 璘의 따님)이다. 장자는 증장악원정 빈(毗) 차자는 증장악원정 숙(璠), 삼자는 증좌승지 상이다.

4) 오휴당공(五休堂公) 룰(慄)

공의 자는 문진(文縝)이고 호는 오휴(五休)이며 휘는 룰(慄)이며 음애선생(陰崖先生) 은(閻)의 증손이다.

아버지는 휘 안현(諱 安鉉)이고 어머니는 영광

정씨 순형(諱 舜亨)의 따님으로 공은 둘째이다. 공은 1585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성이 효성스럽고 십세(十歲)에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집례 일체를 성인과 같이 마치니 조문하신 분 모두가 감탄하였다. 평소애 염려하여 주던 어머니께서도 1622년에 돌아가시어 예에 따라서 장제(葬祭)를 마치니 향리에 모든 분들이 칭찬하였다. 공은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게 지내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수은(睡隱) 강항선생(姜沆先生) 문하에서 수학하니, 제조가 뛰어나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

1622년 사마시에 급제하고 1636년에 승은전(崇恩殿) 참봉(參奉)에 제수를 받고, 그 해 겨울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종묘에 영정을 받들고 대가(大駕 임금의 가마)와 같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가게 되니, 모든 물건 등이 유실(遺失)됨이 없었다.

1637년에 강화(講和)가 되니 분연히 일어나 죽

으려 하였으나, 죽지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향리인 영광(靈光)으로 내려와 바닷가에서 살면서, “늡으면 쉬고 힘이 들면 쉬고, 피로하면 쉬고, 취하면 쉬고, 졸음이 오면 쉬다” 는 뜻으로 호를 오휴당(五休堂)이라 하고 시(詩)와 잡영(雜詠)으로 지냈다. 1642년 겨울 연말에 바닷가 움막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본가로 와서 가족과 같이 살다가 1643년 3월 5일 영면하니 수가 59세이다.

공은 학문이 높아 성격과 도량이 강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기상이 굳세고 집에서는 사물을 대함에 온화하고 대범하며 나아가서는 처신이 분명하였다. 그 당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에 일가종인(一家宗人) 이침(爾瞻)이 권좌(權座)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하여, 혹자가 찾아가 보라고 권하였으나, 공의 깨끗한 지조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공은 영광정씨 수(諱 攸)의 따님에 장가들어 일남이녀(一男二女)를 두었다. 모악산(母岳山) 손좌(巽坐)에 안장(安葬)였다.

이주용 현종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선임



2024년 2월 9일 회생계획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대표이사에 우리 광주이씨 이주용 현종을 선임하였다. 주용 대표이사는 고창군 해리고를 졸업

하고, 명지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금융업과 건설업에서 실력을 쌓아온 전문 경영인으로 메리츠화재와 (주)신림 P&D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주용 대표는 “실추

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회생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사자성어(四字成語)

당동벌이(黨同伐異)

- 黨 무리 당
- 同 같을 동
- 伐 칠 벌
- 異 다름 이

웁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무리의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고 공격하는' 행태에서 나온 사자성어다

《후한서(後漢書)》 당동전(黨同傳)에서 비롯되었는데, 진시황(秦始皇)이 중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이룩한 이래 중국의 권력은 오직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자연히 황제를 둘러싼 친위집단이 권력을 농단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을 이룬 것이 환관과 외척 세력이었다.

또 한(漢)나라 때에는 유교를 국교로 하여 유학을 공부한 선비 집단이 성장하였다. 그런데 왕망(王莽, 중국 전한 말의 정치가이며 '신' 왕조

(8~24)의 건국자)이 제위를 찬탈하자 선비들은 초야로 피해 청의(淸議)를 일삼고, 자연스럽게 명망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무리들이 모였다. 이를 당인(黨人)이라 한다. 후한 때에는 화제(和帝) 이후 역대 황제가 모두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그래서 황태후가 섭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황태후의 친인척인 외척들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후일 장성한 황제는 이들의 전횡을 탐탁치 않게 여겨 자신의 친위 세력을 키우고 이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그 중심이 된 세력이 바로 환관이였다.

환관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 때문에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집단의 결속력이 유달리 강하고, 사회적 책임이나 정치적 경륜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권력을 쥐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마련이었다. 유교적 교양을 쌓은 예비 관료 집단인 선비들이 환관의 농단으로 국정이 문란하고 풍속이 타락해 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리 없었다.

이들도 명망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 전국적으로 방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비 집단과 외척, 환관 세력이 서로 물고 물리는 정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웁고 그름

을 떠나 다른 집단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를 가리키는 말이 당동벌이(黨同伐異)이다.

좁게는 당고(黨綱)의 옥(獄) 이후 이응(李膺)을 중심으로 한 당인들이 유교적 지식 계급 이외의 세력을 적대시하던 사실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한은 외척이 망쳤고, 후한은 환관이 망쳤다고 한다. 후한 말에 이르러 환관들은 외척과 선비 집단을 철저히 탄압하고, 그 결과로 지식인 관료 집단인 선비 집단이 황실을 버림으로써 후한이 자멸하게 되었다. (두산백과 발췌)

공자는 ‘당당하되 다투지 않으며, 함께 하되 무조건 편들지 않는다’ (矜而不爭 群而不黨)라고 말하고, 주희는 ‘서로 도와 비리를 감춰주는 것을 당이라 한다’ (相助匪非曰黨)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좋아하면서도 그의 악을 알아야 하며, 미워하면서도 그의 선을 알아야 한다’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라고 하였다.

자기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옳은가를, 무엇이 전체를 위한 것인가를 기준 삼아야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3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춘성	10,000	대구 남구	이종오	10,000	경기 동두천	이영래	20,000	경기 용인
이형식	10,000	광주 북구	이종봉	10,000	충북 청주	이용문	20,000	서울 강남
이헌래	10,000	광주 북구	이근석	20,000	인천 계양	이용현	10,000	전남 순천
이동열	10,000	전남 장성	이준웅	10,000	서울 은평	이장래	10,000	충남 태안
이종진	10,000	서울 광진	이갑영	20,000	경북 칠곡	이범수	10,000	서울 강남
이수생	10,000	대구 달서	이정수	10,000	부산 금정	이철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풍래	10,000	광주 동구	이수재	10,000	서울 종로	이영래	10,000	충남 보령
이교진	10,000	경북 칠곡	이동환	10,000	대구 북구	이종일	10,000	경기 화성
이민진	10,000	경북 칠곡	이주영	10,000	경북 칠곡	이종수	30,000	경기 구리
이극진	10,000	경북 칠곡	이수야	10,000	대구 북구	이종문	20,000	강원 영월
이경석	20,000	대구 동구	이수장	10,000	서울구로	이영균	20,000	인천 서구
이상호	20,000	경기 성남	이종국	10,000	충북 청주	석탄공종회	50,000	서울 강동
이종엽	10,000	경기 수원	이종건	10,000	인천 미추홀			
이공수	10,000	전북 고창	이종현	10,000	경기 광주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4月 1日

<제397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暲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